

한국타이어, 수출 7억달러 달성 쾌거

2003년 수출량 전년대비 17% 성장 ... 순이익 1000만원 무난 “기대감”

한국타이어가 1962년 타이,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 수출을 시작한 이래 41년만에 한해 수출 7억달러를 달성했다.

한국타이어(대표 조충환)는 12월23일부로 국내 타이어업계 최초로 통관(FOB) 기준 해외수출 7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7억달러는 타이어 2000만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타이어를 늘어놓는다면 길이가 1만2000킬로미터에 달해 서울에서 부산을 14번 왕복하고도 남는 양이다.

한국타이어의 UHP 타이어 판매액은 전년대비 59% 증가했으며 2003년 초 해외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라 북미와 유럽지역에 타이어 수출가격을 3-5% 가량 인상하면서 해당지역 수출이 각각 30.1%, 39.2% 증가했다.

또 품질과 성능 면에서 인정받아 2003년 포드, 볼보, 다이하츠, 미쯔비시, 폴크스바겐 등에 3000만달러 규모의 타이어를 납품하는 등 2003년 1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선적을 기준으로 한 수출량은 중국부문 수출을 제외하고 2002년 실적 대비 17% 확대됐다.



조충환 사장(왼쪽)과 조현식 해외영업본부장(오른쪽)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일본 등에 10개 해외 현지법인과 6개의 지점·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현지 실정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세계 170여개국에서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2003년 순이익이 1000억에 이르는 등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한편, 한국타이어는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조충환 사장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7억달러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조충환 사장은 축사에서 “국내기업의 수출이 전무하던 1960년대 초반에 해외시장에 타이어 수출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 포드 자동차 등 OE 공급, ADAC를 비롯한 각종 잡지 테스트 1위 등의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격경영을 실시해 오늘의 성과를 이루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현재 독일과 중국에 2개의 해외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일본 등에 10개 해외 현지법인과 6개의 지점·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현지 실정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세계 170여개국에서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2/24>